

寶物指定된

堯明科學文化財

風 旗 臺

寶 物：第846號

所 在：창경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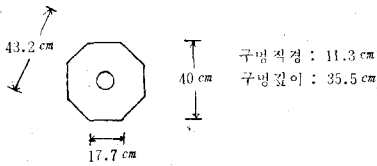
製作年代：朝鮮時代 後期, 18世紀

寶 物：第847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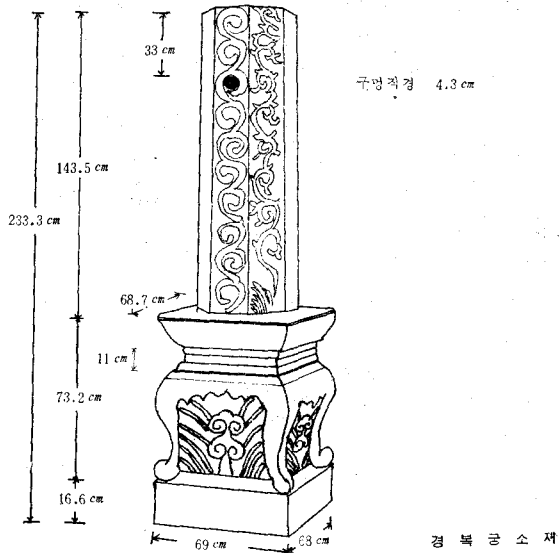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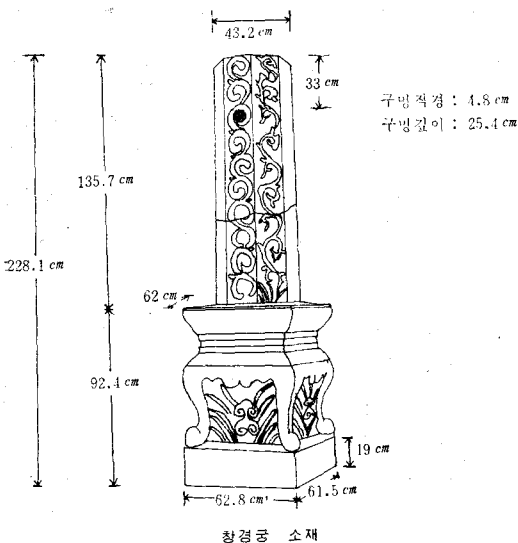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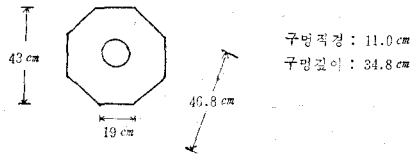
所 在：경복궁

製作年代：朝鮮時代 後期, 18世紀

風 旗 臺



風 旗 臺



- …… 우리의 傳統 發明科學文化財는 韓民族의 發明科學의 創造性을 나타내는 값진 遺……○
- ……産이다. 그러나 이들 發明科學 文化財는 그동안 認識 不足으로 빛을 발하지 못해……○
- ……왔다. ……………○
- …… 此際에 文公部가 世界 唯一의 渾天時計등 3點을 國寶로, 水標 등 15點을 寶物로……○
- ……指定한 것은 우리 祖上의 슬기로운 創造精神을 이어받고 全國民에게 發明科學하는……○
- ……民族으로서의 矜持와 自負心을 심어주려는 措置로 評價되고 있다. ……………○
- …… 特히 國寶 및 寶物로 指定된 遺物들은 傳統發明科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天文……○
- ……氣象分野의 遺物과 地圖(之圖)중에서도 뛰어난 것들이었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우리……○
- ……의 文化를 말할 때 世界的으로 자랑할만한 것들이라고 해온 創造的 遺産들이었다. ……○
- ……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값진 國寶 및 寶物들의 內容은 커녕 어떤 모……○
- ……양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에 本誌는 特別企劃探查를 마련, 이들 國寶 및 寶物를……○
- ……探查하여 連載하기로 했다. ……………〈編輯者 註〉……○

風旗와 風旗臺에 대하여 『증보문헌비고』에는 다음과 같이 英祖의 下敎를 인용하면서 說明하고 있다.

또 대궐 가운데에는 風旗가 있는데 이는 곧 옛부터 바람을 접치려는 뜻으로서, 창덕궁의 通濟門 안과 경희궁의 西華門 안에 들을 설치하고, 거기에 風旗竹을 꽂아 놓았었다.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 風旗臺는 아래에 상을 조각한 臺를 놓고 그 위에 구름 무늬를 양각한 8각주를 세운 모양으로 되어 있다.

8각주의 맨위의 중앙에는 깃대를 꽂는 구멍(직경 3.5cm)이 있고 그 아래기둥 옆으로 배수 구멍이 뚫려 있다.

깃대의 길이는 확실히 않고, 깃대 끝에 좁고 긴 깃발을 매어 그것이 날리는 方向으로 風向을 재고, 나무끼는 정도로 바람의 세기를 잴 수 있었다.

風向器의 構造와 모양은 東闕圖의 그림으로 알 수 있다.

『東國輿地備考』慶熙宮의 項에 의하면, 風旗竹은 영조 8년 즉 1732년에 石造 風旗臺에 설치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文獻備考』象緯考의 기록과 和田雄治의 論文에 의하여 「祈雨祈晴膽錄」의 기록을 근거로 景福宮과 昌慶宮의 風旗臺가 1770년(영조 46)에 製作된 것으로 보던 것은 시정되어야 하겠다.

이 風旗臺들은 창덕궁과 경희궁에 있던 것을 옮겨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測雨器와 水標가 강우량을 측정하는 機器인데 대해 風旗는 바람의 方向과 強度를 측정하는 風向計이다. 風向의 측정은 따라서 農業 氣象學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관측자료이다. 風旗에 의한 풍향의 관측은 아마도 世宗 때부터는 制度化 되었으리라 생각되고, 水標의 경우와 같이 처음에는 風旗臺를 걸의 당간 지주석처럼 만들었으리라 추측된다.

風向은 方向으로 측정되어 24향으로써 표시되었다. 또 풍속은 그 강도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되었는데 아마도 降雨量의 경우처럼 8단계 정도로 분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나무가 뽑힐 정도의 바람은 大風이라 불렀고, 나무가 뽑히고 기와가 날아갈 정도의 바람은 가장 강한 것으로 暴風이라 하고, 大風과 暴風은 風異로서 특히 기록되었다.

風旗臺는 지금은 없어지고 그림으로만 남아 있는 朝鮮時代의 풍향계대로서 그 유용한 관측기의 실증적 유물로 기상 관측기의 先驅的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우>

參考文獻

- 書雲觀志
- 增補文獻備考
- 東國輿地備考 卷 1, pp. 18~19.